



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시사점

최 원 선임연구원

■ 미 연준 의장인 버냉키가 점진적인 출구전략 시행을 언급함에 따라 미국 주가가 급락하고 장기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됨.

- 연방공개시장위원회(FOMC) 회의 결과, 미 연준은 월 850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매입하는 3차 양적완화 정책을 유지하기로 하였고 정책금리도 현행 연 0~0.25% 수준에서 동결하였음.
- 그러나 기자회견에서 버냉키 의장은 미국 경제의 지속적인 개선을 전제로 2013년 하반기 양적완화 규모의 점진적 축소와 2014년 중반 양적완화 중단 가능성을 언급
- 버냉키 의장의 발언 직후 다우지수가 206포인트 하락하는 등 미국 증시는 1% 수준의 급락세를 보였고,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2.3% 대로 급등함.
- 한편, 출구전략 시행 가능성 제기로 전통적 안전자산인 장기국채 금리가 상승하자 안정적이면서도 현금화가 빠른 단기국채로 자금이 쏠리는 현상도 나타남.
 -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급등하고 있는 것과 달리 3개월 만기 국채금리는 3월 말 0.09%에서 6월 18일 0.042%까지 하락함.

■ 출구전략 시행 우려가 커지면서 신흥국 간 대규모 자금이동 현상이 나타남.

- 5월 미국의 출구전략 시행 가능성 제기 이후 브라질, 남아프리카공화국, 인도, 터키, 멕시코 등 전통적 신흥국들에서는 달러 대비 자국 통화가치와 주가가 동반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났음.
- 반면 도이체방크 투자보고서에서 따르면 중동과 아프리카의 경우 5월 6억 5,500만 달러 규모의 자금이 유입되어 지난 5년 동안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조사됨.

■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적은 유로존 지역으로의 자금이동 움직임도 나타남.

- 최근 2주간 유로화 가치는 달러 대비 약 4% 상승하였으며, 미국 상품선물거래소(CFTC)에서 거래되는 유로화 하락에 대한 선물투자 규모도 90%나 감소함.
 - 이는 유로존 재정위기가 상존하고 있으나 유로존 금융시장이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이고, 유로화가 투자처를 상실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으로써의 투자가치가 부각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.
 - 또한, 미국과 일본보다 유럽중앙은행(ECB)의 통화완화 정책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것도 달러 대비 유로화 강세의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함.
 - 그러나 대부분 유로존 국가들의 정부부채와 민간부채 수준이 여전히 높고 실물경기 위축에 따른 소득증가 둔화로 수요를 창출하기 어려워 금융시장 불안이 다시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.
- 한편, 최근 일본 아베노믹스 정책 효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향후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 될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가중될 수 있음.
- 아베 정권은 아베노믹스 정책을 통하여 엔/달러 환율과 자산 가격의 동반 상승을 달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출 및 가계소비 증진 등 실물경제 회복을 기대하고 있음.
 - 그러나 최근 상승세를 나타냈던 엔/달러 환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닛케이 주가도 하락세로 돌아서 아베노믹스 정책 효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.
 - 향후 아베노믹스 정책 효과가 미약해질 경우 일본 금융시장 불안과 정부 재정부담 확대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자금흐름 변동이 확대될 수 있음.
- 미국의 출구전략 시행 여부, 아베노믹스 정책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요인이 존재하는 만큼 보험회사에 미칠 수 있는 금융불안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.
- 외환시장에서는 미국 양적완화 축소 논의로 자금유출 우려와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, 변동성 확대로 위험선호도 약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자산운용 등에 있어서 이를 고려해야 할 것임.
 - 또한, 미국 국채금리 상승 등으로 자산운용 여건이 개선될 수 있으나 금리변동 추이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.

(WSJ, 서울경제 등)